

보도자료

2022년 7월 18일(월) 조간(온라인은 배포 직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센터장 황태욱 (061) 350-1601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주임 박지애 (061) 350-1394

KCA,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파 환경 측정 진행 -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파 측정 업무 실시 -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'KCA')은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에 걸쳐 일반 시민과 함께 생활환경의 전자파 안전을 확인하는 전자파 환경 측정 행사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개최했다.
- 금번 행사는 지난 5월 발족한 '제5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' 시민위원(6명)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자파 측정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.
 - 전자파 환경 측정은 3G, 4G, 5G(3.5GHz 및 28GHz) 대역 이동통신 기지국이 한곳에 모두 설치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기지국에서 진행하였으며,
 - ▲기지국 설치·운용상황 점검, ▲기지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세기(강도) 측정, ▲주변환경 종합 측정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등 측정업무 전 과정에 참여했다.
 - 행사기간 동안 측정된 전자파 측정결과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, 시민들과 함께 측정결과 및 생활 속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.
 - 또한, 광범위 지역 생활환경 전자파의 측정·분석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'이동형 전자파 측정시스템'을 시민이 직접 운용해 보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파 안전 관리체계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.

- KCA 정한근 원장은 “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자파 안전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파 불안감 경감 및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유아동시설 및 생활환경에서 전자파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계획 수립, 측정절차 및 결과 검증 등 전자파 측정 사업 전반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< 사진1_일반시민 전자파 측정 현장 참여 >



o 일반시민이 직접 전자파 측정 및 결과 확인하는 장면

< 사진2_이동형 전자파 측정 시스템 >



o 전자파 측정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생활 주변의 전자파 환경을 측정하는 시스템